

# 광주시, 자전거도로 안전실태 점검

### 539개 노선 669km 포장·교통표지 등 감찰...10월 18일까지 자치구 자전거 활성화 계획 수립·안전점검 실시 여부 확인도

광주시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자전거도로 539개 노선 669km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감찰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한 통행환경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광주시 자전거 안전사고 건수(사망자수)는 2020년 129건(1)에서 2022년 132건(4)으로 증

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같은 기간 사망자수도 1명에서 4명으로 크게 늘었다.

광주시는 이번 실태 감찰에서 자치구 안전점검 계획수립 등 법적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2022년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역(북구 신안동, 광산구 쌍암동 등 4곳) 등 자전거 사고 발생 우발지역을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주요 감찰 내용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여부 ▲자전거도로 지정·고시 등 절차 이행사항

▲안전점검 실시 여부 ▲자전거도로 포장 상태 ▲교통안전표지 상태 등이다.

광주시는 자전거도로 노선 현장 점검 때 단순 파손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토록 하고, 중대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사용금지 등 안전시설 조치 후 신속히 보수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자전거도로 소관 부서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불합리한 제도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전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언제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운행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가을맞이 재능나눔 광주교통공사 조익문 사장 등 임직원과 사구 의원들이 최근 광주시 서구 금호2동 소재 경로당을 방문해 취약계층 이용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가을맞이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펼친 뒤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교통공사 제공>

# 취약계층 노후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돕는다

### 광주시, 21가구 선정...창호·연탄보일러 교체 등 500만원 내외 지원

광주시는 "다음달부터 '2045 탄소중립 광주' 조성을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건축물 21곳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개선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에너지 성능개선사업'은 제2차 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및 관리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

축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 민간건축물의 창호·연탄보일러 교체, 중문 설치 등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를 실시한 뒤 성능평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시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해 가구당 500만원 내외로 시설공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7-8월 자치구와 협업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사업대상 21가구를 선정해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민간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사업은 민간분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이 친환경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심을 갖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소방, 봄철 화재예방 전국 '최우수'

### 소방청 평가 '시 단위' 1위...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호평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소방청 '2024년 봄철 화재예방 안전대책' 평가에서 시 단위에서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청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에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추진한 봄철 화재예방 안전대책을 종합 평가해 최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광주소방은 봄철 화재 피해 특성을 반영해 대형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2대 전략 7개 추진과제를 설정해 안전대책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건설현장 화재안전 강화 ▲화재취약시설 안전확보 ▲행사장 안전관리 강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형 판매시설 지하주차장 옥내소화전 위

치 표지판(LED 패널) 설치로 현장 소방대원과 소화전 이용자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소방시설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특수시책을 펼친 점도 최우수 기관 선정에 기여했다는 게 광주소방본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광주지역 봄철(3-5월) 발생 화재는 지난해 199건에서 올해 21.11% 감소한 157건으로 집계됐으며, 재산피해 역시 전년 19억 3600만원에서 올해 13억 8100만원으로 28.67%나 감소했다.

김문용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으로 모든 직원이 노력해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촘촘한 안전대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 은둔청년들 "일본서 자신감 생겼어요"

### 요코하마서 사회복귀 연수 프로그램 '한달 살이' 도전 중 빵집·식당·농장·보육시설 현장서 사회적 재할·직무 경험 시, 전국 첫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설치 3년간 104명 지원

광주에 거주하는 은둔 청년들이 일본 요코하마에서 '사회생활 연습 한달 살이'에 도전하고 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지원을 받은 광주 은둔 청년 3명이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일본 K2인터내셔널그룹의 '히키코모리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해 사회적 재할과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고 있다.

일본식 표현인 히키코모리는 정신적인 문제나 사회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사회적 교류나 활동을 거부한 채 집 안에만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번 연수는 광주시 은둔형외톨이 사회복귀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난해 광주시·광주시의회·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가 함께 참가한 선진지에서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와 K2인터내셔널그룹이 은둔형외톨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

책적·인적 교류협력을 맺은 데 따른 것이다.

K2그룹은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생활, 동료 만들기, 취업 트레이닝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참가자들은 연수 수료 후 K2그룹이 운영하는 카페, 식당 등 5개 점포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연수에 참가한 은둔 청년들은 K2그룹 기숙사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매일 오전 7시 영상 소통 플랫폼 '줌(zoom)'으로 진행되는 아침조회에 참석해 일본 각지 은둔 청년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 등을 갖고 각자의 일 배움터에서 하루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이들은 농장, 식당, 빵집, 보육 시설, 시장 등 사회 곳곳에서 취업 트레이닝을 받고, 일본 문화체험과 일본어 연수, 상담, 과외 활동 등에도 참여하

고 있다.

이들은 특히 오는 28일에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제12회 한-일 청년포럼'에 참가해 자신들의 은둔 경험과 요코하마 연수 투어 활동 등을 알릴 예정이다.

연수에 참가한 한 청년은 "그동안 좌절로 가득한 삶이었는데, 센터에서 여러 도움을 받아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다"면서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주변에서도 얼굴이 밝아졌다든 소리를 들어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최선영 광주시 돌봄정책과장은 "은둔 청년들이 이번 연수를 통해 사회 복귀와 자립 의지를 다졌으면 한다"면서 "은둔 당사자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연수를 진행한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는 2022년 광주시 민간보조사업으로 설치됐으며, 은둔 당사자 상담, 생활습관 개선, 대인관계 개선, 사회기술 훈련 등 맞춤형 단계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총 104명에게 1030건의 상담 등을 지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농업으로 발달장애인 치유해요

### 광주농기센터, 실내 텃밭 가꾸기 등 프로그램 10월 29일까지

광주농업기술센터는 10월 29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유리온실에서 '마음을 가꾸는 농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27회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광주지역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주간활동(보호)센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발달장애인의 긍정적인 정서 증진과 신체·인지기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치유·직업체험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하반기에 참여기회를 확대했다는 게 광주농업기술센터의 설명이다.

참여자들은 직접 텃밭상자에 흙을 채우고 작물 씨앗·모종 심기, 물주기 등 치유텃밭 가꾸기와 오이·표고버섯 등 지역 농산물 생산한 농산물의 꾸러미를 만들어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방식으로 치유 활동을 하게 된다.

김시라 광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농촌을 통해 정신적 치유와 건강회복을 돕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시민이 치유농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갇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